



교회의 역사 – 12. 타락한 성도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2026. 7. 12

1.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계획하셨고,
성도 모두는 [행 17] 하나님의 일에 동참해야 합니다.

2. 예루살렘 교회는 [모세]를 세우기 위해 사도를 선출했고,
성도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으며,
[바오]의 진리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3. 이방 선교는 특정 몇 사람이 아닌,
구원 받은 모든 성도들이 [다툼]한 결과로 이루어졌습니다.
복음 전파는 지속적인 [오기]가 필요합니다.

4. 주를 위해 박해를 받는 것은 [오인함] 일이 아니며,
하나님의 [사리]으로 모든 박해를 견뎌낼 수 있습니다.

5. 신앙의 수호자로서

다양한 상황에 맞는 성경적인 답변을 항상 [저버]해야 합니다.

6. 성경을 [충신]의 말씀으로 받고

개인의 [거부]으로 성경을 해석하지 말아야 합니다.

7. 교회의 통일은 [저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 [거스]한 자세로 부단히 말씀을 [오거]해야 합니다.

8. 자신의 신앙적 행위를 [저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는 [오스] 받은 자들의 모임입니다.

9. 교회는 세상에 [사 ㅎ ㅈ] 았았기에 세상은 교회를 [ㅁ ㅇ]합니다.

10. 교회의 부패를 막기 위해

개인의 (ㄱ ㄱ)에 힘쓰고 서로 (ㅈ)을 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11. 예수님은 [ㄱ ㄹ ㅅ ㄷ]요, 하나님의 [ㅇ ㄷ]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ㅈ ㅎ]하면 안 됩니다.

① 성공을 위한 도구로서의 기독교

진정한 회심 없이 세속적인 목적을 위해 교회로 몰려든

'이름뿐인 신자'들이 교회를 가득 채웠습니다.

이들은 일요일에는 교회에 가면서도 평일에는 검투사 경기에
열광하고 로마의 전통적인 쾌락 문화(성적인 것을 포함한)를
그대로 즐겼으며, 기독교적 윤리관은 철저히 무시했습니다.

② 귀족화된 성직자들의 엄청난 사치

이 시기 로마 교회의 주교(교황)는 사실상 로마의 최고위 귀족과 맞먹는 권력과 막대한 부를 누렸습니다.

"그들은 기부인들의 기부금으로 살이 찌고,
화려한 마차를 타고 다니며 화려한 옷을 입는다.
그들이 여는 연회는 왕의 식탁을 능가할 정도로 호화롭다."

1

**예수님처럼 채찍을 들고 다니면서
교회의 부패한 사람들을 다 내쫓는다.**

2

**의로운 롯처럼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고 말한다.**

타락한 성도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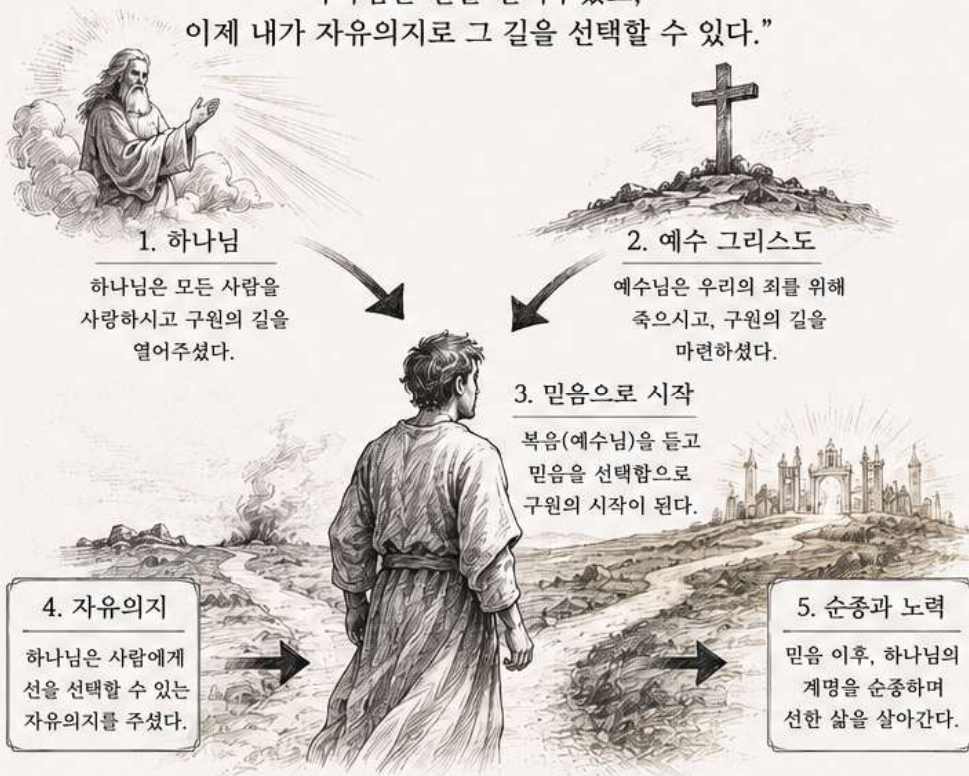
**인간은 원래 아담의 죄로 인해 타락했고
육신이 연약해서 어쩔 수 없다**

〈펠라기우스〉

- 지적 배경: 라틴어, 헬라어 능통한 엘리트 지식
- 신분과 당시의 평판
 - 엄격한 금욕 생활을 실천하는 평신도 수사
 - 철저한 도덕성과 경건한 삶 덕분에 존경 받음
- 신학적 핵심
 - 아담의 원죄를 부정
 - 인간의 이성과 본성은 선하며,
자유의지를 통해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

펠라기우스의 생각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셨고,
이제 내가 자유의지로 그 길을 선택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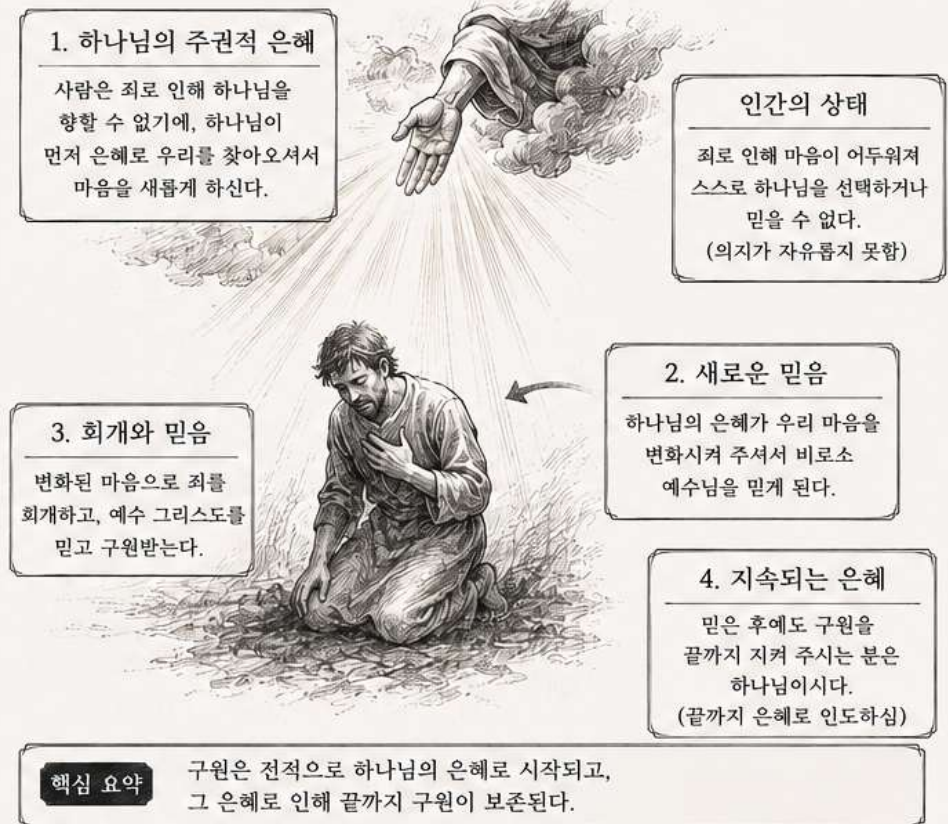


핵심 요약

구원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시작되고,
이후 인간의 자유의지로 순종하고 노력함으로 완성되어 간다.

어거스틴의 생각

“하나님이 먼저 내 마음을 살리시기에
비로소 내가 믿을 수 있다.”



타락한 성도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

3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4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5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그 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에베소서 2장 2절)

너희는 그 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에베소서 2장 11절)

**1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 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2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창세 전부터 사랑받기로 예정되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지금도 사랑받고 있음을 먼저 말해주십시오**